

**장막절이신 그리스도와  
생수의 강들로서 믿는 이들에게서  
흘러나오시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

**2/3 월**

**레 23:39, 43**

39 너희는 그 땅의 소산을 거두어들인 다음, 일곱째 달 열닷셋날부터 칠 일 동안 여호와와 명절을 지켜야 한다. 그 첫날은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고, 여덟째 날도 완전히 안식하는 날이다.

43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 거주하게 했던 것을 너희의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

**요 7:2**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

**요 6:4** 그 무렵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신 16:13-15**

13 “그대는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에서 소산을 거두어들인 다음, 칠 일 동안 장막절을 지내야 합니다.

14 그 명절에는 그대와 그대의 아들딸, 그대의 남종과 여종, 그대의 성문 안에 있는 레위인과 체류자와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15 그대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칠 일 동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의 모든 소산과 그대가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다만 즐거워해야 합니다.

**2/4 화**

**히 11:1, 8-10, 13 (9, 10)**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8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9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10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13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간직한 채 죽었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나그네와 체류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계 21:2-3**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2/5 수**

**창 12:7-8**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8 그는 그곳을 떠나 벨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 가서, 서쪽으로는 벨엘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창 13:3-4, 18**

3 아브람은 네게브를 떠나 여행을 계속하여 벨엘 부근, 곧 자기가 처음에 천막을 쳤던 벨엘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4 그곳은 아브람이 이전에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18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히 11:9**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갈 3:7**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2/6 목**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계 21: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고후 3:17-18**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2/7 금**

**요 20: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고전 15:45**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요 14:19-20**

**19** 잠시 후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인데, 이것은 내가 살므로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8 토**

**출 30:23-24**

**23** “너는 또 가장 좋은 향료를 가져오되 액체 몰약 오백 세겔, 향기로운 육계를 그 절반인 이백오십 세겔, 향기로운 창포 이백오십 세겔,

**24** 계피 오백 세겔을 성소 세겔에 따라 가져오고 올리브기름 한 힌도 가져오너라.

**요일 2:20**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고전 3:6, 9, 12-13**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12**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13**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그 일을 밝혀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입니다.

**2/9 주일**

**엡 4: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요일 5:6**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 16: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2: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6: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벧전 2:11**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체류자와 같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갈 3:7**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